

게임 BGM 저작권 침해와 소멸시효 기산점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임'은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 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하나의 저작물로도 평가된다. 게임의 배경음악(BGM)의 경우에도 게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게임을 위해 별도로 창작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이미 창작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과정에서 제작자 등이 다른 저작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게임의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 선고돼 소개해 본다.

A사는 자신이 출시·유통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일부 장면에서 저작자인 B의 음원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B가 문제를 제기했고 A사는 해당 음원을 해당 게임에서 삭제했으나 그 삭제 시점까지 해당 음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부당이득이 문제됐다.

먼저 해당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해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그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도 상고심(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가 인정됐다.

다만 A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문제됐다. 대법원은 상사 소멸시효기간(5년)이 아닌 민사 소멸시효기간(10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으나,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일)과 관련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날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

립하지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A사가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해 그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B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부터 해당 음원이 삭제된 시점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B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위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게임의 배경음악 등과 같이 계속적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용일별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되므로 그에 따라 시효 완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법무법인 바른

세종시 르네상스



김 언 세 (정책사회부)

"대전을 행정부 수도로 만들겠다." 이는 1970년대 초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후반 충남 공주 장기면(지금의 세종 장군면)에 행정수도를 임시로 조성하는 안을 추진했다. 둘 다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천도론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무산됐다. 막이 오른 대선전과 맞물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정견(政見)들이 나온다. 크게 세종으로 가느냐 아니면 청와대 복귀냐로 나뉘는 모습이다. 특히 세종 이전을 내건 출사표가 주목받는다.

집무실의 탈서울은 곧 수도 이전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내각책임제 국가) 집무

실이 위치해 있는 곳이 행정수도다. 만약 제1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즉시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아니다. 물론 남아공(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처럼 수도가 3개인 나라도 있다. 세종이 행정수도가 될 경우, 서울은 국제금융 중심지 내지 입법수도 또는 사법수도로 남을 수도 있다. 단, 국회의사당의 경우 세종 분원이 5~6년쯤 뒤 설치된다.

3년 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에서 발표가 나왔다.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크게 놀랐다. 선거운동 기간 이에 대한 일인연구 언질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된 이전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도 꽤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 터져 나온 무속 논란은 많은 이에게 가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계엄 및 파면으로 인해 다

시포 이전이나, 용산 잔류냐의 논쟁은 2년 당겨졌다.

걱정이 앞선다. 국민 상당수는 집담보·신용용자 원금과 이자 갚기에 허덕인다. 그런데도 집무실 이사비로 막대한 수준의 혈세가 사라졌다. 게다가 정치·사회적으로 아직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각 부문 복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수도 이전'이라는 명제까지 국민 앞에 띄우는 게 옳은가 싶다. 짧은 시간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에 개헌 논의도 연기됐다. 수도 이전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신중에 신중을 기해 시도해도 될까 말까 한 엄청난 쟁점이다. 여론의 중지도 시간을 두고 모아 가야 한다. 민심이 양극단으로 갈려 있다. 성급하면 화를 부른다.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서 생각하면 될 일이다. 용산에 남아야했다면 늦어도 사전투표 전에는 유권자한테 알리는 것이 도리다.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14일 (음 3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으니 서두르지 말고. 48년생 작은 먼지가 신궁을 거슬린다. 60년생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편지 같다. 72년생 인의예지가 상식이 되도록 자녀교육에 힘쓰자. 84년생 재산이 없다고 인식하지 마라.
- 소** 37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49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의미 없는 일. 61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말을 조심하도록. 73년생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했다. 85년생 욕심이 너무 과하여 낭패를 본다.
- 로알이** 38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재운도 있다. 50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소중히. 62년생 무지개를 좇아가니 잡히지 않는다. 74년생 돈은 없으나 지혜의 힘이 있다. 86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하자.
- 토끼** 39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현실 직면. 51년생 인쇄하다 보니 삶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선다. 63년생 자동차 무연하는 주의. 75년생 삼재에 대비하여 '참을 인' 자를 새기자. 87년생 오랜 적선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서서히 돌아온다.
- 용** 40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52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는 날. 64년생 먼저 주는 것이 더 큰 것을 얻는다. 76년생 실수를 줄이니 상황이 나아지고 새로운 것을 손에 친다. 88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
- 뱀** 41년생 누구나 아픔이 있다. 53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는 더 어려운 시간. 65년생 손님에게 기본 소식을 듣는다. 77년생 신중함 마음으로 통제를 해야지 누가 해주겠는가. 89년생 그동안 노력의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 말** 42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온종일 불평. 54년생 재산상속의 기쁨이 있다. 66년생 평소 애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8년생 천을 귀인에 해당하는 귀인을 만나는 행운이. 90년생 서북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어 길을 떠난다.
- 양** 43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도 무리가 없다. 55년생 누구에게나 지고이기는 법이 있다. 67년생 운세가 상승하니 용기를 내서 추진. 79년생 비고면서 운을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잘하자. 91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 원숭이** 44년생 마음이 즐거우니 몸도 가볍다. 56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68년생 농담도 사람 밝기며 해야. 80년생 결국에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92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 닭** 45년생 빌려준 돈이 선물 되어 들어오는 날. 57년생 극성 부모가 되려 하지 않도록. 69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는 있으나 영업의 이득은 발생. 81년생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실력을 키워라. 93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연쟁이 커진다.
- 개** 46년생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 58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 70년생 선배의 도움으로 일을 처리. 82년생 누구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은 봐주기가 싫어진다. 94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 돼지** 47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행운. 59년생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한 일진. 71년생 집 청소로 환경을 바꾸자. 83년생 밤사이 안영이란 말이 있으니 여행길은 다음으로. 95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우도록 해야한다.

김상회의四季 금을 찾아서

황금만능 시대는 언제부터일까? 옛적부터 사람들은 돈을 쫓아 해맸다. 선사시대에는 더 많은 짐승을 사냥해서 그 고기와 가죽을 얻고 뼈로는 무기를 만들어 더 용맹해짐을 재산으로 여겼다. 그러다 곡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저장의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각각의 산지에서 나는 고유한 먹거리나 필수품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물물거래를 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믿을 수 있고 간편한 교환수단을 찾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화폐 탄생의 이유가 된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곡식 같은 농산물은 물론 소금이나 조개껍질 같은 것이 재화의 교환수단이 된 것이며, 시대가 발전해가면서 나라에서 신용을 담보하는 동전이나 엽전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다.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라마다 자국의 화폐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화폐들의 국제거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금본위 제도가 생겼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일련 머스크를 정부 효율 부수장으로 임명했는데, 그는 미국 켄터키 폭스노스 지하 금고에 금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겠다고 하자 세계 금값이 출렁거렸다.

미국은 세계 제1위 금 보유국으로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8,800만톤의 금이 바로 켄터키 폭스노스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내용만으로도 세계 금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필자의 앞선 글에서도 은행의 탄생에 관한 배경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럽이 은행 탄생의 선조가 된 것도 중세 이후 제국주의가 발현되면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다 보니 상대적 재화거래의 안정성과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을 대체할만한 실물가치를 대변하는 재화는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열과열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7	6	1	4	8	9	9
4	8	9	8	7	9	6	1	7
1	9	6	7	9	8	8	2	4
9	4	2	1	8	6	9	7	8
8	7	8	9	9	2	1	4	6
9	6	1	4	8	7	9	8	2
8	1	8	2	7	9	4	6	9
6	2	9	8	4	8	7	9	1
4	9	4	9	6	1	2	8	8

5	8	7	6	9	1	4	2	8
6	1	2	9	4	8	7	9	8
8	9	4	7	1	2	9	6	8
1	8	9	9	7	6	2	4	2
4	7	6	2	8	1	8	9	9
9	2	9	4	8	6	8	7	1
7	9	1	8	9	2	8	6	9
2	6	9	1	7	8	4	8	9
8	4	8	6	2	9	9	1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5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5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